

## 청자기와

청자운반선은 인종은 물론 의종이 즉위한 뒤에도 개경 벽란도와 탐진 미산포를 자주 오르내렸다. 개경의 관원들은 공무로 먼 지방을 갈 때는 가끔 청자운반선을 이용하기도 했다. 공부(工部) 소속인 장작감(將作監) 우두머리 판사(判事)도 탐진을 가려고 청자운반선을 탈 계획이었다.

그런데 장작감 판사는 청자운반선을 승선하려고 했다가 이틀 전에 포기했다. 궁궐 밖의 민가를 헐고 정자와 연못의 조성을 감독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판사 밑에 감(監)이나 소감(少監), 주부(主簿) 등의 벼슬아치가 있지만 실제로 건축과 토목 일을 하는 구실아치는 장작(將作)과 산사(算士)였다. 벼슬을 제수 받지 못한 그들은 대부분 목수 출신이었다.

이틀 전이었다. 장작감 판사는 구실아치인 장작과 산사를 불렀다. 판사가 두 사람에게 말했다.

“둘이서 탐진에 갈 것이니 준비하시게.”

“언제 떠납니까?”

“내일 떠나시게.”

“알갓시다. 근데 어케 뺑지 갑니까?”

“폐하께서 원래는 나를 지명하셨으나 나는 궁에 남아 감독할 일이 있네. 자네들도 들었겠지만 궁궐 밖에 정자와 연못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조성하라고 하니 나는 여기 남아서 감독해야겠네.”

수리에 밝은 산사가 말했다.

“판사 나리, 연못은 흙만 판다고 되지 않습네다. 그라니까니 2년은  
잡아야 할 것입네다.”

“2년 안에만 조성할 수 있다면 다행이네. 정자는 짓는데 얼마나  
걸리겠는가?”

장작이 답변했다.

“팔각지붕이라든 세 달은 걸립네다. 사모지붕은 더 빠릅네다.”

“장작감에서 짓는 정자인데 팔각지붕은 되어야지. 폐하께서 2년 안에  
조성하라고 하셨네.”

“날씨만 받쳐주면 연못까지 개까스로 마치겠습네다.”

“그래서 자네들을 탐진으로 급히 보내는 것이네. 마침 청자운반선이  
모레 벽란도에서 뜬다고 하니 준비하게.”

그러면서 장작에게 장작감 판사 이름으로 된 공문서를 건네주었다.  
공문서의 수신자는 장흥부사와 대구소 향리였고, 어명으로 내려가  
일하는 관원들이니 무엇이든 협조하라는 내용이었다.

“판사 나리, 저희가 탐진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네까?”

“아참,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청자기와 정자 두 동을 지으려고  
하네. 도공들을 울력시키어 청자기화를 구워서 가지고 올라오게.”

“왕실 팔각정자이니까니 최소 다섯 평 정자는 되야갓습네다. 그라든  
정자 한 동에 청자기야가 2천5백 장 정도 들갓습네다.”

판사가 놀랐다. 수리에 달통한 산사가 금세 암산하여 장작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더 들어갔으면 더 들지 덜하지 않습네다.”

“청자운반선이 청자기와장만 실고 올라오겠군.”

“청자기야 묶음 무게가 있으니 기야말로 그럴 것입네다.”

판사는 비록 구실아치이기는 하지만 탐진에 내려가면 몇 달은 있다가 올라올 장작과 산사에게 비상금으로 은전 한 꾸러미씩을 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머리가 떨어질 정도로 꾸벅 숙였다. 목직한 은전 꾸러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졌다. 장작의 아내는 놀란 나머지 반닫이에 숨졌다가 다시 밤중에 꺼내 무명천에 둘둘 말아서 장롱 깊숙이 넣었다.



청자운반선은 예정대로 벽란도에서 출발했다. 청자운반선은 송나라 명주까지 다닐 정도로 장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장삿배였다. 선원들이

명주까지 가는 까닭은 송나라의 얼후나 비파 같은 악기 및 상아와 물소 뿔, 옥제품 등을 사가지고 와서 부령이나 고안, 탐진 등을 가서는 밀하게 청자와 물물교환하려고 그랬다. 청자로 바꾸기만 하면 송나라에 갈 때 사무역이라도 몇 배의 이문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장작감의 두 구실아치들은 판사의 지시를 받고 탐진으로 가고 있었는데, 장작감은 궁궐의 건축과 수리, 도성의 토목 공사 등을 주관하는 관아였다.

열흘 뒤.

청자운반선을 탄 장작감 구실아치들은 무사히 탐진 미산포에서 하선했다. 미산포 별장에게 장작감 판사 명의의 공문서를 보여주자마자, 검문을 생략했다. 바로 군사에게 명하여 군마 두 마리를 끌고 와서 두 구실아치를 태워 대구소까지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장작과 산사는 마치 큰 벼슬아치라도 된 것처럼 수염을 쓸면서 대구소로 가는 동안 고개를 뒹굴러 저으면서 탐진의 풍광을 즐겼다. 탐진은 도성인 개경과 달리 산들이 왕릉처럼 둥글둥글 했고, 산에 둘러싸인 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면서도 투명했다. 때마침 햇살에 반짝거리는 탐진바다는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했다. 두 구실아치의 길잡이를 하고 있는 군사가 말했다.

“나리, 탐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요.”

“별장이 친절하니까니 수하의 군사도 똑같지비.”

“서울에서 오셨으께 이양이면 성근지게 모셔야지라우.”

“탐진 인심이 개정보다 무뎡 좋시다.”

“서울은 으쩍디라우?”

“눈 뜨고 있어도 코 베가는 곳이라우.”

이윽고 미산포 군사가 대구소 당전 앞에서 두 구실아치를 기다리게 한 뒤 대구소로 들어갔다. 바로 대구소 향리가 켜걸음으로 나왔다. 그러자 장작이 장작감 판사 이름으로 된 공문서를 내밀었다. 대구소 향리는 선 채로 공문서를 보고 난 뒤 두 손으로 장작과 산사의 손을 차례로 덥석 잡았다. 어명으로 내려온 개경의 구실아치 관원을 환대하겠다는 표시였다.

“폐하께서 탐진에 일을 주셨는데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소잉.”

“향리 나리께서 영광이라니께 안심이 됩네다.”

대구소 향리를 따라서 두 구실아치는 당전으로 들어갔다. 당전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소리가 나자 그제야 여종이 나와 찻잔을 들고 나왔다. 대구소 향리가 말했다.

“귀허신 분들이 오셨으께 술잔을 내오그라. 먼 디서 오신 손님은 술로 대접해야 허느니라.”

“배로 오는 동안 술을 마시지 못했시다. 술이 고평네다. 허허허.”

“하하하. 을때든지 마셔불고 오늘은 꼭 쉬시지라.”

“감사합네다.”

“궁궐 옆에 정자를 지슬라고 허는 모양인디 거그 들어갈 청자기야는 우리 탐진 도공덜이 잘 구울 거그만요. 궁께 걱정 마시고 양신 마시지라.”

“계산해 보니까니 청자기야가 생각보다 몽두루 들어갑네다. 만만찮습네다.”

“여러 가마에서 굽는다면 아무리 많은 수량이라도 대줄 수 있겠지라.”

“토기야라든 모르지만 청자기야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읍으니까니

그럼네다.”

대구소 향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었지만 두 구실아치는 안심을 못했다. 여러 궁을 짓고 수리해온 장작감에서 청자기와 정자를 짓기는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탐진에서 구워서 올라가는 청자기와의 크기와 길이, 개수가 잘못 되면 한 해를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몰랐다. 무엇이든 처음으로 부딪히는 일은 긴장과 두려움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당마실 가마에서 구우른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감독할 수도 있음께 실수는 읊을 거지라.”

대구소 왼쪽으로 미산포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이 사당마을이었다. 대구소 향리는 사당마을 가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탐진에 가마가 많습네까?”

“탐진 천태산 골짜기마다 있지라. 개울물을 따라 냇가에도 많고라.”

“가마가 많다는 것은 찾는 수요가 있으니까니 그라지 많갓습네까?”

“탐진 양민덜은 천신을 못허지라. 서울에서 다 가져간께라. 청해대사 이후 지금맨치 청자가 잘 된 적은 읊지라. 지금은 비색청자 시상이 되부렀그만요. 탐진 청자가 서울은 말헐 것도 읊고 인자 송나라에서도 천하제일이라고 헌갑습디다.”

대구소 향리는 청자기와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을 안 했다. 탐진 도공들이 무엇이든 얼마든지 구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대구소 향리의 얼굴이 불쾌해졌다. 목소리가 더

커졌다.

“장작감 나리, 지가 책임지겠당께라. 가마를 여러 번 때다 보든 성공  
허겼지라. 금께 긴장허지 마시고 탐진 막걸리를 양신 마셔부시씨요.”  
“향리 나리, 위낙 침 하는 일이라서 그러니까니 이해해 주시랴요.”

산사가 대구소 향리의 비위를 살살 맞추면서 말했다. 어쨌든 대구소  
향리는 흔쾌하게 두 가지를 약속했다. 첫 번째는 두 구실아치가 언제라도  
감독할 수 있게끔 당전에서 가까운 사당마을 가마에서 청자기와를 굽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자기와가 뒤틀리거나 표면이 터지는 일이 생기면  
최상의 청자기와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작업하겠다는 것이었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을 듯했으므로 두 구실아치는 비로소 안심했다.

초저녁에야 세 사람은 헤어졌다. 대구소 향리는 비틀거리면서 대구소로  
갔고, 두 구실아치는 여종을 따라서 당전 객사 대방에 입실했다. 객사  
대방은 개경의 벼슬아치나 타지방의 부호들이 찾아오면 내주는 널찍한  
방이었다.

두 구실아치는 청자운반선을 타고 오는 동안의 여독에다 대구소 향리가  
권하는 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큰 대자로 누워 순식간에 코를 골았다.  
두 구실아치의 코 고는 소리가 동창을 넘어 여종이 자는 골방까지 들릴  
정도였다.

다음날 두 구실아치는 아침 해가 동창에 비칠 때쯤 일어났다. 그것도  
여종이 깨우는 바람에 홀이불 속에서 겨우 나왔다. 여종이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당마을의 행수도공 최씨가 당전으로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도공 최씨가 대방 밖에서 문안인사를 했다.

“장작감 나리, 최 도공이그만요. 향리 나리께서 새복에 지를 불러 나리 분덜을 잘 모시라고 지시켰그만요.”

“당전 안에 들어가 지다리비.”

“예, 그탈라요.”

두 구실아치는 서둘러 상의를 걸치고 당전 안으로 갔다. 당전 여종이 두 구실아치를 보더니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말했다.

“나리, 아침은 어처케 뭇을 준비헐께라우?”

“아침은 찾아온 사람을 만난 뒤 정할라네.”

두 구실아치는 최 도공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이 앉자마자 여종이 재빨리 찻잔을 가져왔다. 여종 역시 대구소 향리에게 잘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음이 틀림없었다. 산사가 말했다.

“나는 장작감에서 온 산사라고 험네다. 탐진에 온 까닭은...”

“새복부터 향리 나리께서 신신당부를 하시드그만요.”

도공 최씨가 두 구실아치들이 무슨 이유로 탐진에 내려왔는지를 다 알고 있다며 고개를 주억거렸다.

“지는 최 도공이라고 험디 잘 부탁드립니다요.”

“행수도공이라고 들었습네다. 청자 맨드는 실력이 최고이갓시다.”

“아이고메, 지보다 잘 맨드는 도공이 을매나 많은디요. 가마 험 지가



오래 되다봉께 행수도공이라고 불리줄 뿐이그만요.”

“경험이 스승입네다. 경험 이상의 스승은 읊시다.”

“서울 나리라서 달라부요잉. 나맨치 촌구석에 사는 도공을 추켜새와 주시는 나리는 참이그만요.”

“청자기야만 잘 맨들면 서울 구경도 할 겁네다.”

“아이고메, 말썸만 들어도 심이 나그만요. 심 닿는 대로 나리 분덜 맴에 쫓 들게 맨들어볼랍니다요.”

여종이 뜨거운 찻물을 가져왔다. 최 도공이 찻물을 발효 찻잎이 든 다관에 부었다. 청자 찻잔에 발효차의 빛깔이 황금색으로 바뀌었다. 장작의 관심사는 차보다는 청자기와였다. 장작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청자기야는 언제 만들갓습네까?”

“틀을 짜기만 허든 바로 성형힐 수 있지라우.”

“그것이 수월하지 않습네까?”

“틀은 에렵지 않은디 암막새나 수막새를 어처케 맨들지 궁리를 해봐야 지라우. 민무니 보다는 인동초 덩굴무니는 암막새에, 연꽃무니는 수막새에 음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겄지라잉.”

최 도공은 청자기와를 처음 만들어 보는 사람답지 않게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년 전부터 인주에서 내려온 나전칠기 장인 도공 이씨가 탐진 도공들을 상대로 구름과 학, 인동초 덩굴, 연꽃, 버드나무 등의 문양을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청자기와에도 응용할 수 있었다.

두 구실아치는 최 도공의 얘기를 듣고 감탄했다. 청자기와에 문양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었다. 문양이 들어간다는 것은 청자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었다. 인동초 덩굴은 겨울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덩굴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장수와 후손이 대(代)를 이어가는 것을 상징했다. 또한 연꽃 문양은 불교에 심취하여 사찰행차가 빈번한 의왕을 기쁘게 할 것이었다.

“어케 인동초와 연꽃을 생각했소?”

“탐진 도공덜은 문양을 어처케 청자그럭에 넣을지 수년 전부텸 고민 해 왔지라. 최근에는 음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나전칠기멩키로 상감까지 허는 것이 으쩌냐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지라우.”

“궁에서 은사입한 청동주전자는 보았습네다만 상감한 청자주전자가 나오믄 멋지갓시다.”

“백토나 자토를 상감허믄 문양은 선명허갓지라우.”

“허나 그보다는 청자기야를 얼뚱 맨들어야 험네다.”

“향리 나리 지시를 지가 어처케 어기갓습니까요. 청자기야를 몬즈 맨 들어야지라우.”

여종이 세 사람의 찻자리로 오더니 아무 말도 않고 되돌아갔다. 최 도공이 눈치를 채고 말했다.

“아침 드시라고 저런 것 같그만요. 지는 또 당전에 올텐께 잘 드시씨요.”

“최 도공을 곱새 보고 잤으니까니 얼뚱 오시라우,”

“예, 서울 나리.”

두 구실아치는 여종으로부터 아침상을 받았다. 아침상에는 개경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장류들이 올라와 있었다. 장작은 전복계장으로, 산사는 민물 토하젓으로 오곡밥 한 그릇을 말끔하게 비웠다.

잠시 후 도공 최씨가 당전으로 다시 찾아왔다. 두 구실아치는 도공 최씨를 따라서 사당마을 가마로 갔다. 가마는 도공 최씨의 개인 소유였다. 그러므로 무슨 기물이든 도공 최씨가 마음대로 운용했다.

가마는 세 칸짜리 오름가마였다. 두 구실아치는 개경 부근에서도 가마를 자주 보았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 도공의 가마는 길이가 개경 부근의 것보다 길고 컸다. 개경 부근에 있는 가마들은 칸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통가마였던 것이다. 통가마는 뿔감이 적게 들고도 온도를 쉽게 올리지만 불을 가둘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청자는 불을 오래 가두어야만, 불이 불을 태워야만 비색이 나오고 투명한 유리질의 광택이 났다. 그렇지 못한 개경 부근의 가마에서는 청자 태토를 사용해도 황갈색으로 나오기 일쑤였다. 연듯빛 맑은 비색은 기대하기가 불가능했다. 탐진이나 부령이 아니면 비색청자를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두 구실아치는 가마를 구경한 뒤 도공 최씨의 작업장인 동막으로 갔다. 동막 벽에는 그가 그려놓은 인동초 덩굴 문양과 연꽃 문양이 붙어 있었다.

아마도 눈에 익히려고 그런 듯했다. 도공 최씨가 말했다.

“청자기야를 향리 나리께서는 지헌테만 맨들라고 하시는데 혹시나 잘못 될 수도 있을게 다른 도공헌테도 맨기문 으쨌겠습니까요?”

“탐진에 온 지 이틀 밖에 안 된 사람이 무얼 알겠습네까?”

“참말로 재주가 뛰어난 도공덜이 탐진에 많그만요.”

“그래도 향리 나리가 최 도공을 소개한 것을 보든 믿는 바가 있지 않겠습네까?”

“암만 생각해도 지는 모르겠그만요. 어차든지 향리 나리와 약속했응께 틀부텀 맨들어보겠습니다요.”

“최 도공이 당전에서 가참게 있으니까니 우리는 좋시다.”

청자기와를 만드는 과정을 수시로 볼 수 있고, 최 도공이 실수가 있다면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두 구실아치는 최 도공이 청자기와 틀을 짜는 동안 대구소 향리 주선으로 탐진 구경에 나섰다. 그러나 두 구실아치는 쌍계사나 만덕사, 멀리 무위사나 월남사 등 어디를 가든 오직 청자기와만 생각했다. 어명을 받아 자신들에게 지시한 장작감 우두머리인 판사를 한시도 잊을 수 없었다.

두 달 뒤.

마침내 두 구실아치는 최 도공이 성형한 암막새와 수막새를 볼 수 있었다. 장작 구실아치가 반가운 나머지 성형한 암막새를 덥석 만졌다. 그러자 최 도공이 말했다.

“나리, 덜 말라서 깨져볼 수 있그만요.”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말이었다.

“암키야, 숫키야는 맨들기가 수월하지만 두께는 에러울 거 같그만요.

두꺼우면 터져불고 얇으면 찢어져분께라우.”

“두께를 달리 해서 여러 장 구워보면 좋갓시다.”

“당연헌 말썸이그만요. 그라믄 답이 나오겠지라우.”

“넌중에 드릴 말썸이기는 헌디 청자기야가 각각 얼마나 필요허졌습니까요?”

암산에 뛰어난 산사 구실아치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던 듯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가 계산한 5평 정자 한 동에 들어가는 기와는 다음과 같았다.

‘암키와 1천5백장. 숫키와 1천장, 암막새 150장, 수막새 150장, 망와 (귀면와) 8장, 연봉 150개, 절병통 1개.’

연꽃이 오므리고 있는 형상의 연봉이란 수막새 위에 꽃아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식물이었다. 그리고 지붕 꼭짓점에 올리는 여러 개의 향아리를 포개 놓은 듯한 장식물은 절병통이라고 불렀다.

최 도공은 조급한 두 구실아치와 달리 서둘지 않았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운 채 시험 가마부터 불을 땀다. 그런데 천우신조라고나 할까. 시험 가마부터 상품의 청자기와가 쏟아졌다. 암막새, 수막새의 음각 문양은 그윽하고 선명했다. 뿐만 아니라 암키와, 숫키와는 두께가 알맞은 덕분에 뒤틀리지도, 찢어지지도 않았다. 청자기와들은 비록 연듯빛 비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한여름 탐진의 산자락처럼 싱그러운 청록색이었다.<계속>